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달라져야 한다”



임 윤 철*

얼마 전 일본의 한 대학에서 도서관 건축을 연구하는 사람이 필자가 근무하는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사람과 우리나라 도서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러한 말을 언급한 기억이 난다.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규모의 대·중·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중앙관의 기능을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가 매우 인상적이라는 것이다. 즉 branch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남산도서관과 용산도서관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 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사람의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공공도서관만 보더라도 마포평생학습관 1개관에만 분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 나머지 46개 공공도서관이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독자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진 외국 공공도서관의 경우 그 지역의 중앙관을 중심으로 여러 형태의 다양한 branch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전체 5,352개의 공공도서관 중 5,183개관이 branch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뉴욕공공도서관의 경우 80개의 branch를 가지고 있을 만큼 branch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인적구성, 자료수집과 정리 등 도서관 행정업무를 중앙관에서 집중 관리하므로 도서관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 도서관 봉사 권역의 축소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료수집과 봉사로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각 branch마다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도 규모가 큰 하나의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 작은 규모의 branch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 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branch 도서관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특징은 시·도 교육청 관할의 공공도서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 공공도서관으로 행정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실현이 어렵고 도서관 간의 협력 체제는 물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상호대차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청 관할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간 대출프로그램을 포함한 도서관리프로그램

* 우리 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 자료봉사과장, iyc7097@hanmail.net

이 공유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조차 동일한 서비스와 중복된 프로그램 실시로 인한 자원 낭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행정체계를 일원화시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을 지역 특성과 규모에 따라 통합·위계적으로 연계하고 분관화하여 운영체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행정 주체라 하더라도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정책적 협력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간 연계의 가장 기본적인 도서관리프로그램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리프로그램은 대부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KOLASⅡ를 사용하고 있고, 학교도서관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발한 DLSⅡ를 사용하고 있어 장서DB 구축과 검색에 대한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 지역주민과 학생들은 별도의 검색 시스템에 연결하여 이용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낭비와 원활하지 못한 자료 이용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자료 이용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도서관 행정체계를 일원화시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을 지역 특성과 규모에 따라 통합·위계적으로 연계하고 분관화하여 운영체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앞서 언급한 내용을 제대로 충족시키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생활 속에 숨쉬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양적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관광부에서 발간된 『독서진흥에 따른 연차보고서(2002)』에 의하면 미국은 공공도서관 10,426개, 1인당 장서수 2.59권, 1관당 인구수 26,283명, 영국은 5,352개의 공공도서관에 1인당 장서수 2.25권, 1관당 인구수가 10,958명이며, 가까운 일본은 공공도서관수 2,585개에 1인당 장서수는 2.19권, 1관당 인구수는 48,852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국 471개의 공공도서관의 1인당 장서수는 0.71권이고, 1관당 인구수가 102,732명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1인당 장서수는 미국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1관당 인구수는 거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수준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서 도서관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 6만명당 1개관 수준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지식과 정보의 인프라인 도서관의 수준이 이렇다면 우리나라가 내세우는 지식정보사회는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크다.

앞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러한 여러 당면 과제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지식산업의 근간을 지키고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도서관 건립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도서관이 하나의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